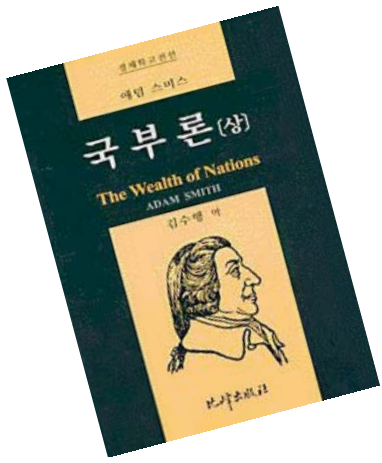


[ 기획 ]

퍼펙트 論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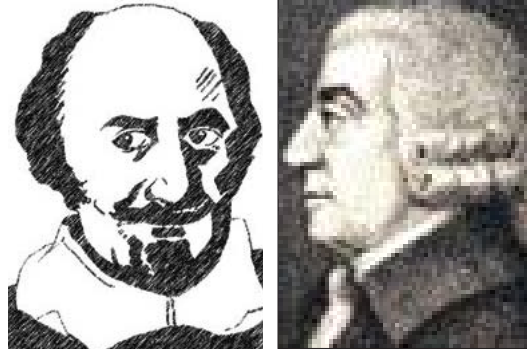
언어논술 - 국부론과 정부 개입

시장 자율화 한계 속 정부의 역할은?



1. 이기심의 두 얼굴 (토마스 홉스 vs 아담 스미스)

토마스 홉스(1588~1679)는 자신의 저서인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은 사악한 욕망이며, 이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았다.



〈토마스 홉스〉 〈아담 스미스〉

따라서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홉스의 생각처럼 무질서하거나 파괴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정론(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홉스의 견해에 반박할 하나의 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천 문제

(가)와 (나)는 서로 추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다른 지문이다. (다가 각각의 정부 역할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가)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분극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이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2.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은 어떤 책일까? 대단한 책?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부론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성서(Bible)이며, 경제학 분야를 대표하는 한 권의 고전을 선택 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국부론'을 선택할 것이다.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문제는 이기심이 비록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홉스의 지적을 무시해도 편향을 만큼 스미스의 가설이 잠정하게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언젠가 스미스가 천문학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는 별들이 각각 자신의 궤도를 돌고 있는데 우주 전체가 조화와 균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이롭게 생각했다.

3. 대공황과 정부개입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은 실패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이기심, 즉 '보다 잘 살고 싶은 욕구'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상했지만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는 신의 숨결처럼,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스미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간 버렸다.

쉽게 알 수 있다. 1923년에서 1925년 사이 경제 평균지수를 100으로 잡고 비교해본다면, 1933년의 미국 공업 생산은 60, 건축은 14, 고용은 61, 노동자 임금은 38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경험은 바보에게도 가장 좋은 학교이고 필요는 발명을 낳는 법이다. 사람들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비록 자본주의가 많은 장점을 지녔지만 그에 못지않은 결점도 있기 때문에 간단투어도 잠조차려면 번성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교훈을 배웠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제학자인 존 케인즈(1883~1946)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능의 확대는... 자유방임에 대한 무서운 침해가 아니다.

(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고 소득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이는 손' 즉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기도 한다.

(다) 한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모교를 방문하여 옛 경제학 사수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자는 스승의 탁자 위에 놓인 기말고사 시험지를 발견했다.

아침 출근시간마다 타는 버스· 지하철, 학교가 끝난 뒤 먹는 맛있는 떡볶이 한 접시,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마시는 차의 시원한 맥주, 멋있어 보이는 디지털카메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가장 공통적인 목적을 찾아보려면 '행복'이 될 것 같다. 굳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공리주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행복 = 어떤 일에 대해 만족감이 충족된 상태'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결국, 만족감이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출발한다. 데카르트가 철학적으로 근대사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이후, 이 이기심에 대해 의문이 있던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김 석 1318논술연구소 언어논술 강사

등명상 강의 www.nonsul.1318hi.com

공시 최고

아래가제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7. 10. 29. 16: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정훈

Table with columns: 시연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legal case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columns: 시연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legal cases and their details.

한일지도판매(주) 2007 최신광주지도 책 판매개시! 타사제품 기가특된 부분

효성공인증개사 대지매매(교회, 원·투룸부지) 몰류창고, 공장부지 실버타운, 노인병원 건축물 하차장 부지

동아공인증개사 여실장점 모집 (년수익1억보장) 대형PC방 부동산 경매·공매